

전북대 배현아 졸업생, 경성국립대 교수 임용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배현아 졸업생이 최근 경성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현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학부 졸업 후 경성국립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2024년 경성국립대 수의학과 수의내과학 전임교원으로 임명받았다.

배 교수는 "전북대학교 은사님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마음을 다해 지도하고 좋은 환경 속에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 감사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철 수의과대학장은 "전북대 수의과 분야의 많은 졸업생이 전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돼 후속 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장수소방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백세동안 요양원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수소방서 안전복지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시설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 및 유사시 피난대책 수업을 당부하고,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관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따뜻한이 전달돼 웃음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 소상공인연합회, 애향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대환)가 최근 임실군을 방문한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재)임실군에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애향장학금을 전달한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4년 전 결성, 현재 1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상권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임실군 소상공인들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노력해 왔다.

홍대환 회장은 "임실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며 얻은 수익과 사랑을 지역 후배들의 교육에 보태고 싶어 14명 임원의 뜻을 모아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심민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 장계면 지사협, 설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현·임재성)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을 혼자 보내는 독거노인, 독거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떡국떡, 과일 소분고기, 반찬 등 음식 꾸러미를 제작해 위원들이 직접 40가구에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명절 음식 나눔 행사는 해마다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명절을 홀로 보내는 분들을 위해 떡국떡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김성현 장계면장은 "앞으로도 홀로 지내는 이웃을 돌보고 나눔 문화 활성화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며, 소외계층 없는 장계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랑의 선물꾸러미' 나눔 실천

다리로움 KT, 익산시 나눔공간·저소득가구에 설맞이 선물세트 200점 기탁

(주)KT가 최근 익산 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선물꾸러미' 200점(46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용남 KT 전남·전북법인 고객본부장, 홍찬일 KT 전북법인 고객담당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떡국떡과 만두, 사골육수 등 풍족한 설 명절을 위한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나눔공간과 저소득 가구에 각 100점씩 전달됐다.

김용남 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익산시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연탄 봉사과 KT유즈 야구용품 지원, 나눔공간 쌀 기탁 등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에 보탬이 되도록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좋은 일에 여러 기관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보내주시는 정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익산시 지역사회상품권 다리로움을 5년째 익

/익산=이재훈 기자



김영식 순창부군수, 설 명절 맞이 군부대 위문

김영식 순창부군수가 지난 8일 설날을 앞두고 지역방위와 대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부군수는 순창에서 발생한 재난 등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큰 힘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역안보 태세 확립과 방위 협력체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덕담을 전하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김영식 부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은 위문품으로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순창군은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사랑 듬뿍 밀반찬 나눔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소선자, 서덕교)는 올해에도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사업은 도통동 사랑 나눔 1인 1계와 갖기, 사랑 듬뿍 찬찬찬(饌贊撰)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 등이다.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약을 통해 매월 정기기부자 130명 125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 1인 1계와 갖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후원받은 기부금 1천만원은 협의체 위원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17가구를 매월 2회 방문해 안



부를 살피고 밀반찬 나눔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아 밀반찬뿐만 아니라 산적 등 각종 전류를 함께 전달했다.

밀반찬을 받은 어르신은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받으니 고맙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소년자 도통동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운영 남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김종표 대강면장, 설맞이 경로당 방문

남원시 대강면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김종표 면장은 관계 직원들과 관내 신촌경로당 외 2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세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면장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면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기부된 백미(20kg) 1포식을 30개소의 경로당에 전달했으며, 경로당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 이렇게 쌀을 주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 같다"며 감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 김종표 대강면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마을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드리고 싶어 경로당에 방문하게 되었고, 가족 및 이웃과 함께 훈훈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 어려운 이웃들 위해 200만원 쾌척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임원들이 최근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해 관심을 모았다.

유승열 위원장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나해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축



으며 축제 홍보와 방문객 유치, 개최 지원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한돈협회, 시에 돼지고기 선물세트 전달

남원시 한돈협회(지부장 소시호)는 최근,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돼지고기 선물세트(원가액 3백만원/85박스) 남원시에 전달했다.

이번 증정은 매년 2회씩 주기적으로 하는 소외계층 도움 주기 운동 5회차로 22년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한돈협회 돈육 나눔행사로 양돈농가의 뜻과 정성이 담겨있다.

협회는 지역 양돈농가 2호로 구성되어 양돈업발전과 함께 TSG 지역 사소시호 지부장은 "남원지역 양돈농장이 지역 축산 및 농업생산에 증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의 특성상 냄새로 인해 농장주변 주민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냄새없는 클린농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나눔행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새마을지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마을지회 합길권 지회장이 최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3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합길권 지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준 김제시새마을지회에 감사드리며,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새마을지회는 김제시 동서로2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봉사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김제=곽노태 기자



양지건설 이도현 대표, 장수군에 고향사랑 5백만원 기탁

장수군은 (유)양지건설(이도현 대표)이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장수군을 찾아 기부한 이도현 대표는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장수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이도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노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림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에 대해,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기자